

농식품시장 '최신 트렌드'가 주도

가치·간편·컬러·슈퍼곡물 강세... 31일 소비자트렌드 발표대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농식품 소비트렌드가 '가치소비·간편·컬러농산물·슈퍼곡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486도시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가치소비, 간편화 강세, 컬러농산물, 슈퍼곡물 특세가 4대 농식품 트렌드로 나타났다. 가격 대비 맛, 영양성분 등에 중점을 맞춘 실속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외관에 생긴 흠집이나 인쇄 등의 문제로 버려지던 '못난이 과일' 구매액은 가구당 연간 2012년 108원에서 2016년 556원으로 5.1배가량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가격 대비 성능을 추구하는 구매성향이 확대되면서 삼겹살에 비해 담백하고 지방 함량이 적은 돼지고기 알타리살 구매

는 2010년 가구당 3만3445원에서 2016년 5만5977원으로 67% 늘었다.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깐마늘, 깐 도라지, 깐더덕, 깐파 등 간편 식재료 구매액은 2010년과 비교해 15~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간 구매횟수 비중을 기준으로 빨강·노랑·보라·검정 농산물은 뜨고, 초록·하양·주황 농산물은 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하나의 색깔이 아닌 여러 색깔이 섞인 농산물이나 이색 농산물이 구매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랑 방울토마토, 검정색 감질의 수박, 보라색 고추 등이 대표적이다. 60대 및 고소득(600만원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귀리,아마씨,대마씨 등의 슈퍼곡물 구매액은 2013년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군 성장률(2001~2016)이 29%에 달하며 8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온라인 농식품 시장의 주요 소비자는 40대 이하의, 아이가 있는 3인 가구, 월 소득 400만원 수준의 사람들로 조사됐으며, 주로 쌀 등 무거운 곡류, 보존성이 높은 가공식품, 야가용 분유와 치즈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별점(만족도)은 매출 증가에 효과가 없으나, '긍정적 상품평'이 많으면 주문과 매출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지를 강조하는 상품이면 연매출이 300만원(주문은 141회) 증가했으나, 주산지가 아닌데 '지역'을 강조하면 오히려 판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용 기자

발쌀용 1인당 소비량은 2016년 61.9kg으로 줄었으나 가공용은 2016년 12.8kg으로 2012년 11.2kg보다 오히려 늘었다. 고구마는 가격이 올라 군고구마 장사들이 사라지고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소비자들이 많이 즐기는 간식(다이어트식)이 됐다. 딸기는 향기와 맛으로 겨울철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며 온주밀감의 구매액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진청은 31일 오전 9시 분청 종합연찬관에서 '2017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리승용 농진청장은 "생산이 소비로 직결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농산물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며, "2017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를 통해 '소비자에게서 길을 찾는 농업' 이야기를 들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23일 김제의 황토마을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컨설팅... 기업 애로사항 해결

생진원, 김제 황토마을 방문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지난 23일 전북 마을기업의 기술력 강화 및 판로확보를 위한 '유통·마케팅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을기업 현장방문 컨설팅'을 가졌다. 이날 컨설팅은 생진원 김동수 원장과 유통·마케팅 전문가인 온누리친환경영농조합법인 장연규 대표의 함께 김제의 황토마을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김제 황토마을은 100% 국내산 고구마를 이용해 고구마말랭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북도 지원사업인 마을상품개선 맞춤형지원사업을 통해 생진원과 기존 고구마 말랭이 제품의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있다. 농가의 소득 창출 및 고구마의 고부가가치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제 황토

마을은 현재 가내수공업 형태의 제품 생산 방식을 체계화된 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며 고구마 원물의 안정적 수급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영역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온누리친환경영농조합법인 장연규 대표는 "김제 황토마을의 고구마말랭이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해 대량생산 라인 구축과 재배 농가와의 고구마 원물의 수급 방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판로확보 및 사업화가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원장은 "우리지역의 고구마를 사용해 맛과 영양을 갖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기업에 품질균일화 및 대량생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안정적 소비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개선, 디자인 개발, 시제품제작, 위생교육 등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시름않는 소상공인 돕는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와 축진과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선도형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조합원 15개사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결성된 협동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조합원 15개사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결성된 협동조합 연합회를 대상으로,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일례로 자동차정비업, 인쇄업 등의 협동조합들은 이미 규모화돼 부품,재료의 공동구매로 급성장 하고 있고 성장을 위해 유망아이템 사업을 계획

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점포 개설, 기술전수 및 서비스개발 등 유망아이템 사업추진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도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해 규모화와 상생문화도 정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꽃집·제과점 등 소상공인 주력업종 협동조합은 브랜드 활용, 품질인증, 제품개발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통해 전국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규모화 축진 자생력 제고 역점 지원

전북중기청 인순호 청장 직무대리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전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80.8%에 달하는 전북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협력과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협동조합들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수시접수방식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9월 15일까지이며, 세부 공고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식품제조 마을기업 '길잡이' 역할 특출

경진원, 운영표준화 훈련과정 진행... 참여자 만족도 높아

식품제조 마을기업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마을기업 운영표준화 훈련과정을 진행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일지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공동체인 마을기업 중 식품가공업은

파일 제작 등 식품 제조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도내 마을기업 제조시설을 교육장으로 활용해 원료 입고부터 최종 포장까지 현장에서 과정별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각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위생기준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됐다. 기업별로 HACCP기준의 동선계획을 마련해 각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신 개정된 식품법규를 적용한 표시사항 개선 컨설팅도 병행함으로써 훈련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

훈련과정에 참여한 한 마을기업 대표는 "식품제조기업을 운영하면서 불안요소가 많았는데 70%이상 실습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바로 응용이 가능한 식품제조 교과서를 만난 것 같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경진원 관계자는 "이번 훈련과정의 성과를 토대로 소규모 인력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이 위생과 행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JB인문학 강좌 개최

이동진 감사 초청 익산원광고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지난 23일 익산원광고등학교에서 '제3회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JB은행장학문화재단 이사인 성재환 원광대 교수는 "청소년들이 역경을 딛고 일어난 명사들의 체험담, 학생들 기부에, 미래의 꿈 설계,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의

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좌는 익산원광고 1, 2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모험가인 이동진 감사를 초대해 '나는 내 인생의 파일럿'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이사인 성재환 원광대 교수는 "청소년들이 역경을 딛고 일어난 명사들의 체험담, 학생들 기부에, 미래의 꿈 설계,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의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관상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